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친구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사서물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헌 편집국장: 이형수

주중절가서예배모임

하나님께 감사! -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주중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감사와 축제의 절기이다. 그러나 주중절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헛된 우상, 또는 사탄한 조상을 향하여 감사를 돌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즉, 모든 세계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인간이 만든 우상이 가라고고 있다. 그러므로 오천 년 민족의 역사보다 앞서 제제고, 태초부터 스스로 개성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합을 잊지 않아야 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리고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나(시 22:27)

- ◆ 찬 송 305장 다같이
- ◆ 신앙고백 신도신경 다같이
- ◆ 설교교독 눅 12:16-31 다같이
- ◆ 말씀찬양 헛된 고인, 헛된 즐거움 인도자

- ① 부자는 무엇 때문에 '고인'에 빠졌는가? 풍성한 소득 때문에 '헛된 고인'에 빠졌다(7절).
해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는 탐욕의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고인화한 소득이 많을 때, 예는 재물을 잃어버릴까 하여 더욱 큰 고인에 빠진다.
적용: 그들로 모든 수입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 ② '헛된 고인'에 빠진 부자는 결국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헛된 즐거움'을 추구했다(8,19절).

해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다.
적용: 참된 즐거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은혜를 추구하라.

- ③ '헛된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빛의 것이 되었다(20절).
해설: 부자는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였지만, 정작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와 동시에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므로 여러차례는 평가를 받았다.

적용: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인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④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고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21절).
해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케 된다는 것은 3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정 생활에 있어서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은 고지라.

- ◆ 기 도 인도자
- ◆ 찬 송 358장 다같이
- ◆ 주기도문 다같이

자녀수예배 메시지

“친구” (요 15:13~15)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의 개념은 늘 존재하며, 누구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모든 인간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들을 조스스름게 살펴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정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가 되는가?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고 하면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미움으로 헤어지고 하지 않는가? 주님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아셨다. 그분은 개인이나 국가든 간에 오늘 의 친구나 내일에는 원수가 되는 세상의 현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진실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하셨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가? 성육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마귀에게 태어나셨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내가 잡아먹기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치소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영원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실망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치소를 예비하리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예수께서는 정말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원래 친구란 상대방의 개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를 의미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 있었는가? 그 분이 바로 우리들이다. 모든 영혼의 직접 재물을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에게는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여서 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합을 받은 자요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참된 친구로 인도하시니 주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누구하고도 무슨을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마 11:28).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가?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친구가 되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대로 우리의 영을 얻기 위해 친구가 된다. 그 사랑의 사랑을 가지고 선택해서 친구를 삼기도 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좌절되어고 소년처럼 당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마 11:19, 눅 7:34).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는 친구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도다”(롬 5:6,8,10). 심지어 그분은 사형수까지도 친구로 삼아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는 친한 친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한에 이르러서 살리라”(눅 23:43).

예수의 사랑은 믿음만한 것인가? 그렇다. “실제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한계까지도 끝났자마자 깨지지만, 예수께서 배수신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끊임없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었다.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느니라”(히 13:5).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친구가 되시는 분 세 번이나 자기를 부질없는 베투로 사랑하셨던 분이 그래서 그분은 실제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세상의 환난을 함께 겪어가지고 하신다. 아주 오래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불로 불을 거스리던 것처럼 환난 속을 함께 겪으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께 당신은 자라나니 하니 그가 내리미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면 어떤 양의 외가 그 온을 잃어 회개 하였느니라”(렘 7:14).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라! 그 사랑스러운 친구를 막대하지 마시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말씀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되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너희가 일하라”(요 14:20).

신학 질문

죄의 형벌

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모든 세대에 가장 커다란 의문이었습다. 이 의문을 풀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궁구하였으나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대해 간단히 한 마디로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함다. 아담은 범죄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졌습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습다. 이 사망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갓난아이에게도 미칩니다(롬 5:12).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다(롬 3:10,23).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습다. 뿌리 뽑힌 나무가 금방 시들어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혔으므로 육체의 생명력을 잃고 결국은 죽는 것일습다. 히브리서 9:27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라고 말씀함다.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되어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성경(계 20:14)은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함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와 죄의 형벌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다. 주 예수를 믿으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다(벧전 2:24).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습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훗날 천국에 이를 때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일습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혜성(목사, 3교구지도)

Sun of Righteousness

(Malachi 4:2)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Today's message comes from the last book in the Old Testament. It gives us a vivid reference, a truthful vision of happiness in the future. It reads,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v. 2). This beautiful verse explains that whoever fears the name of the Lord God will be totally happy, completely blissful. As human beings, we have only one big decision in front of us; fear the Lord or don't fear the Lord.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outcome of each individual's selection! Those who fear the Lord will be endlessly blessed, and those who don't will be endlessly cursed.

What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to those who choose to fear the Lord? The awesome things that will occur are beyond human imagination. They're so, so glorious and wonderful that we don't even have the words or expressions to describe them.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provides an amazing, tremendous blessing. It depends upon human choice whether this wonderful blessing is received. How important is this decision? Look at verse 1, "For behold the day is coming, burning like a furnace; and all the arrogant and every evildoer will be chaff; and the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ablaze, says the Lord of hosts, so that it wi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How severe is the curse? Those who don't fear the Lord, the arrogant and evildoers, will be like chaff set on fire. Like the wonderful blessing, the terrible curse is also beyond human imagination. It's so awful and horrible that our minds can't fathom its depths of despair and suffering. The result of human choice is clear and unchangeable, but the decision is left up to you.

Whoever fears the name of the Lord will have the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them. Amen! The Bible focuses everything on Jesus Christ, especially His second coming. So, we Christians

expect wonderful things to happen. The Bible is filled with the glorious blessings and wonders of Jesus' return. In Christian history, the Day of the Lord always gives us grace.

Jesus Christ is the sun of righteousness. He is the One who is the center of God's system of grace. As an illustration, just look at the earth and see how much we need the sun.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cold and dead. No life form could survive, Jesus needs to be the center of all human life. We have to hold fast and keep Him near. Just like the earth needs the sun to survive, humans need Jesus to live. He's the originator of all good things. He is the sun of righteousness, of everything good. No bad things can come from Him. His sunshine is always bright, clean, and good. From Him every good thing will produce indirect light and heat for absolute effectiveness,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s" (Jam. 1:17). The Lord is the source of all light,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and He does not change,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s".

Whoever trusts, fears, and respects Jesus will receive the sunshine that comes from righteousness. But the terrible thing is that whosoever does not fear the Lord will never have the sun of righteousness. They are blind. They don't even know what day looks like because all they can see is darkness. It's always night for them. They never see sunshine. Can you imagine this earth without the sun? Absolute death. Please think of Jesus Christ in this manner. If you don't have Jesus, you don't have eternal life.

Whenever Jesus' shines upon you, you will rejoice,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v. 2). His sunshine is the light of truth, healing, and agape love. If you live in His sunshine you live with Him. Do you realize how much happiness, joy, and delight you will experience when you go with Jesus? Your life is

going to be amazing! You're going to be healthy because all sickness will be healed, and weak people will become strong. Moreover, your life will grow just like the sunshine from the sun gives this earth all its life. Jesus is eternal life. His Word, the Word of Jesus is eternal life. So, the earlier you come to Him the sooner you're going to be better. When He rises in your life, He will give you happiness. For when the sun comes in there is no cold. If you fellowship more and more with Him, you have more and more benefit. He will give you freedom. You will go forth because you're not in jail. You will jump like a calf free from its stall. When calves are set free to enjoy the green grass of the pasture, they jump in joy. So, too, will you leap with joy.

When Jesus forgives sinners, He gives freedom, an eternal privilege. He will give you spiritual responsibility. What a wonderful effect!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inside, and be made into a new creature that grows in His sunshine. Whenever Jesus is with His people they will eat with eternal food. He will keep them safe. He will sanctify them to grow and grow as a child of God. But there's one condition, fear the Lord. If you do this, you will taste the refreshment of new life, a new creating in your inside. Righteousness is a heavenly blessing. Please come to Jesus Christ. Please fear, obey, and live under His light.

My friends, no one is promised tomorrow. Make your choice now. Do you want to fear the Lord or not? In our future, we have the choice of receiving a wonderful blessing or a terrible curse. Jesus is the only One who blesses our present life and future life, forever and ever. In Him you find the grace of God beyond all your dreams. In Him you become a child of God that will live in eternal happiness in His Kingdom. How can anyone fully explain the tremendous happiness, joy, good things, better things, awesome things, and on, and on that you will experience in Him. The choice is yours. Amen. ■



김성관 목사

의로운 해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선택

오늘의 메시지는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미래에 벌어질 진정한 비전으로서의 밝은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 4:2). 이 아름다운 구절은 누구든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온전히 기뻐하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오직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할 것인가?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각각의 선택은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끝없이 축복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

주를 경외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벌어지게 될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영광스럽고 놀라기에 우리가 감히 묘사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혜택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에 대한 거부간의 결정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에 따르는 저주가 곧바로 시작합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곧 교만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풀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와 같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마찬가지로, 처참한 저주 또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깊이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다. 이렇듯 인간 선택의 결과는 명백하고 불변합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재림의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머리 위에는 의로운 해가 비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영광스러운 축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의 날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예수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배부시는 은혜의 체계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는 마치 지구가 속해있는 태양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해가 없다면 지구는 얼어붙어 죽게 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꼭 붙잡고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 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입니다. 그는 의로운 해요, 모든 선한 것의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빛은 언제나 완만하고 부드럽게 비칩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간접광선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을 발산할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주는 모든 빛과 물체와 지성과 도덕과 영의 근원이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그늘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존경하는 자는 의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처참한 결과는 바로 그들이 그 의로운 해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두운 만 보기 때문에 낮의 광명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 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밤뿐이며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망일뿐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

언제든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은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2절)” 그의 햇빛은 진리와 자유와 아가페 사랑의 빛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빛 가운데 살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경이할 기쁨과 행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병이나 아픔을 얻어 건강하게 될 것이며,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양이 지구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일찍 그분께 나아올수록 여러분은 더 신속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침처럼 떠오를 때, 그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해가 비추는 곳에 추위가 없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분과 더욱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더욱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기에 자유롭게 전전할 수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들 수 있습니다.

송아지들이 자유롭게 나와 들뜬의 푸른 초장을 즐길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쁨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분은 자유, 즉 영원한 복권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의 햇빛을 받고 자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영원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한 조건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감도 동시에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행한다면 여러분은 새 삶의 신성한, 즉 내적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외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아래서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 빛 아래에서 사십시오.

지금, 선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내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주를 경외하시겠습니까?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처절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꿈을 꾸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행복과 기쁨과 좋은 것들과 그보다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여저 인간이 완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장 순 옥 (외선부 몽골팀 교사)



사랑하는 몽골의 형제·자매들과 헤어져,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달 동안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천 년 동안을 나라 없이 몇몇 방황하며 고향과 억압 속에서 한 맺

힌 삶을 살아온 그들은인지라, 다른 어느 민족을 전도하려 할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었다. 지나온 역사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의 명분 아래서 그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도 크기에 그 땅 가운데서 서서 Christian(그리스도인), Cross(십자가), Church(교회)를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들의 꿈속에 맺힌 질문은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이 솟아 오른다. 우리에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지옥이요 가장 더러운 이름이기때, 그를 믿는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Messianic Jew' (메시아니 유대인),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골란 고원과 라미인 접경지역 그리고 가자지역 근처까지 가면서 전쟁의 심각성을 실제로 느꼈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계속되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가끔씩 들리는 총성과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은 이곳이 항상 전신상태의 지역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군중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피해야 했지만, 우리는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히브리 찬양을 부르고 한국의 축

복송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그들이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참 사랑에 목말라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군인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들의 열린 마음은 우리를 감동시켰고 용기를 주었으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외치던 어느 젊은 군인의 눈물 젖은 목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깊이 숙고 해야 할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내 귓전에 들린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다.

이번의 이스라엘 단기선교여행은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었다. 가는 곳곳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를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여 생명 대価 복음을 전하는 한 열정적인 유대인 전도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것이라 고 믿우며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여인 뜻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리라.

유대인선교는 특별한 자별성을 두지 않으면 쉽게 실패할 수 있기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민이며 장자로 택할 받은 민족인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과 인



(대속죄일에 회당앞에 행하는 유대인 (보사소금 2001/10/01))

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 뿐이다. (롬 11:11) 물절적으로 동요한 복음을 주며,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기에 성경(구약의 모세오경)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 뿌리깊은 유대적 전통에 매여 있을과 동시에 매우 세속적인 그들에게도 깊은 삶의 불안과 공허가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참사랑에서 멀어진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맛보아야 하는 성도들이 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태복음 21:9절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백록 하바 베셀이 도아) 하는 이 뜻과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서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기대한다. 나의 평생의 전하고 인자하신 구세주 Yeshua ha Messiah(예수아 하 메시아)를 찬양한다.

세계관 ②

개인과 세계관

칸트(E. Kant)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모든 사람들은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안경을 썼는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말해준다. 갈색 안경을 썼다면 세상은 갈색으로 보인 것이고,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으로 보인 것이다. 이 안경이 곧 사람의 '세계관'이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세계관을 갖는다. 이것은 인간만이 이성(理性)을 갖는다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이성은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가 바로 이성이다. 먼저 인간은 눈이나 귀 등, 오감(五感)을 통해 습득된 사물을 이성을 통해 지각(知覺)한다. 이것은 자신의 이성에 이 지각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동물을 쓰다듬을 때면 사람은 정그럽다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인식에 근거해서 그 동물을 대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물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약하지만). 세계관은 그 사람의 '문'이다. 문을 통해 나오고 들어가듯이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 간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말해 준다. 우리는 '위인관', '영웅관'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또 공생애 내 다리의 등에게 세 있는 '명인'을 자주 접한다. 우리는 이러한 글을 통해 그 글을 남긴 사람의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명인들이나 위인들의 삶은 그 사람의 세계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옳고, 정답과, 총정답 그것이 모두 아니라는 사실은 옳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던 방식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안형택 목사)

9교구 노방전도를 다녀와서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정 옥 연 (원사, 9교구)

지난 12월 30일예 구역장 양성훈련을 마치고 교구 일원들과 함께 방배동으로 노방 전도를 갔다.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분주한 일상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교구 전체가 남을 정하여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귀하게 여겨진다.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밝은 얼굴로 전도지를 받으며 귀가울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웃 쳐다보며 우리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거나 전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집에서 할 일도 많은 텐데 쓸데 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고 야단을 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인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복덕방에 들어가 할아버지 다섯 분을 만났다. 전도지와 전도용 휴지를 드리며 예수 믿으시라고 했더니 마침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폭발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이라 한 분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반문하신다. 어려운 질문부터 접촉점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가시라는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 주시는 할아버지를 태신자로 정하고 전도기가 다른 분이 천국은 만민이라 갈 수 없다면서 지옥가면 된다고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도 모르시는 그분과 대화가 계속되던 나중이 될 것 같아 "그래도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라고 나눴다. 겐트 카드는 작성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가지만, 막상 만나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 한 마디에 낙심하고 맥이 빠질 때가 많다. 지난 여름 농어촌 전도를 나왔을 때, 교구 목사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고 당당히 전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또 전도지의 말씀으로 주께 돌아오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기에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천국 일꾼으로의 부르심

장 민 철 (고동부 교사)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테러 광경은 지구촌 세계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매스컴을 통하여 죽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다. 또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불길인 자신의 생명까지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건물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비상구로 안내하며 그들을 부축하고 나오는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피부색과 사상과 신념을 가진 약 60억의 인구가 함께 살고 있다. 그들 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자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와 사상을 믿으면서 넓은 사방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너지기 전의 세계무역센터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참사 이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학벌이나 외모가 좋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의위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천국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비상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변 뉴욕테러사건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7-38)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며 천국의 일꾼으로서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핍박과 칼과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천국일꾼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불길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위험에 뛰어드는 구조대원처럼, 지금도 생명의 비상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더불어 나를 먼저 천국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였다.

믿음의 선한 작품을 싸우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하여 경건한 삶과 준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의 기도가 이 시간 내 맘 속에 울려 퍼지는 듯하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복 순 (침사, 고동부 교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저를 불러 주셨고, '나는 길로만 할 수 없다'라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99년, 자원봉사로 출전 소년원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제 한 살인 된 것이 매우, 하도 없애 후손이 나 맡을지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이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는 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압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자신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에게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저 역시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나 화장을 위한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기 윤 영 (대학부, 변원찬양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 두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 자신들을 위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올 줄 아는 제자를 원하셨던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윤영아, 너의 가족과 친구들과 아끼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겠니?" 일상 속에서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나를 위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속상해 하는 '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쫓'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인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킨 채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경외함으로 당연히 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친구들보다,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뻐할 일보다 나의 기쁨을 먼저 챙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며 따라간다면 열치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결국 도나를 위한 복종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난 대학부 안에서 조장으로서 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하하고 더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나도 부끄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난 정말 죄송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주셨다.

나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딸로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충헌교회 안에서, 대학부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유년부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훈련의 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쓰임 받고 있다. 정말 하나님을 섬김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한 복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순종으로 천국만을 소망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흠족히 여길 만한 제자가 되는 일에 욕심부리고 있다.

구역 일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8교구 행당구역



항상 부족함과 불충분함 속아나는 교만이 내속에 있음을 알게 "하나님, 전 구역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든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늘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게 멋대로인 저를 행당 1구역장에 세우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십니다. 전 언제나 하나님은 날 짝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식구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늘 아픈데도 불구하고, 1부 예배 찬양을 서서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정말 구역을 위해 마음으로 일일이 지도해 주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난 미리 수만 채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집회식 신자는 아닌가? 하고 회개하곤 합니다. 또한 최근에 남편을 간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내신 성도님의 '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땐 더더욱 작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장애인인 딸 때문에 중현교회로 찾게 되었고 그 딸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을 만날 때면, 자식을 둔 같은 어머니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울이 될 수 없고 모세가 될 수 없기에, 도세를 기르는 심정으로 묵묵히 뒤에서 그 장애인 자녀를 위해, 또 중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또한 타고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능력있는 분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실 땐 성경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무속의 색깔을 띠지 않는 우리나라 교회의 변질된 믿음 속에서 진실된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순종이 계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생활하는 우리 구역의 막내 성도님의 귀한 믿음을 볼 때, 가장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저의 불신앙이 드러나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못 하시는 집사님들을 위해 그저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경훈 구역장)

다음주일 찬송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작사,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이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 크리스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햇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주름졌던 얼굴에 보람의 공로를 깨닫게 해 줌으로써 감사와 기쁨의 빛이 흐르게 하며, 또한 인간의 절망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심령들에게 심자의 능력으로 진정한 용기와 소망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환히 빛나도록 한다.

- 1절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하소 알고서
어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절 서로 오는 광명을 보았기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절 한번 가고 안 오는 밝은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밤낮 주위하여 종과 밭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은 헌신의 자세로 불러야 할 것이며, 둘째 단과 넷째 단의 3번째 소절에 '햇빛 되게'의 가사 부분은 가법과 포근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의 '하소서'를 부드럽지만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노래하면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이 될 것이다.

(전양위원회)

[인물 중심의 교회사 사례] 마틴 루터

하나님의 의(義)

루터는 계단의 맨 위에 다다랐다. 이제 하나만 더 올라가면 끝난다. 그는 입 안이 바짝 말랐다. 그리스도가 끌려 올라가던 빌라도의 궁전 앞에 놓였던 스물 여덟의 계단 하나 하나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이 계단을 오르신 그리스도여, 나의 이 작은 성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재하시오 저속의 두려움에서 부디 나를 구하소서." 이제 그는 지금까지의 수도 생활의 절정을 맞으려는 참나에 도달한 것이다.

스물 한 살의 젊은 나이에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다. 그 동안 그는 갖은 고통의 과정을 지내왔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참회, 철야기도, 금욕의 나날들이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끝까지 하기로 결심한 루터였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해도 어찌 된 것인지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었다. 남들은 성자가 되어가는 지 몰라도 루터 자신의 마음은 별로 바뀐 것이 없었다. 여전히 육심과 미음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은 멀리 두렵게 느껴졌다.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더욱 수도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차츰 루터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불가능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아무리 기도하고 유위하고 훈련을 해도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었다. 당시에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도계 형식 외에 아무 것도 없단 말인가? 그는 무엇인가 살아 있는 신앙을 원하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개혁이었다.

1512년 루터는 29세가 되는데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성서 신학의 교수가 되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여기에서 루터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은 로마 교회나 신앙의 신배들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믿을 그에게 던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놀라운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선행이라고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의롭다 하 할 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라고 여겨 주신다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루터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떨며 었던 인간에게 자기의 의를 덧입혀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보화! 루터는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당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죄인이란 동시에 의인, 이 역설적인 두 면이 신자의 정체였다. 신자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 루터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영혼의 평안과 삶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루터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비록 통속적인 방법으로 수도의 길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도를 닦았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신일함 없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음으로써 깨달은 진리의 첫 단계였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 양호실

"... 그 사람에게서 이르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막3:15)

16교구 백은실 집사(여40세) 지난 금요일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변정국 집사(남75세) 간암이 조기 발견되어 약물치료 중인데 매우 낙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곳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고침을 받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세 언' (동국대학교 전자과 2학년)

집은 천안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강릉동에서 자취 중입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주일집에서 종종 맛있는 식사도 해 주시고 자상하게 대해 주셔서 마음이 열려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웃을 매 장간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살아가게 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믿음을 키워가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혜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 10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 모임

- 남녀전도회

- 별 세

- 결 호

- 6급급 태식과 초천 저도장치

일시 : 10월 13일(토) 17:00 장소 : 만나홀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1. 대상기간: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해 각 지도회는 제외(군·경장·교정·산업·미용·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에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시산표(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진제시산표),
군민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물, 사제 연
도 예산통장(영인 포함)
4. 감사시절기간: 2001년 10월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시절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

추천보지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 시 스타트 맨션
시 간: 매주 화요일 10:00~11:30
개강일: 10월 10일 수요일로 6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10월 9일(목)
2. 살롱엘트
시 간: 매주 수요일 13:00~11:30, 13:00~15:00,
19:00~21:00(아라반)
수강료: 3만원(3개월 과정, 아라반 6만원)
3. 인터넷 칼럼라이터
시 간: 매주 목요일 11:00~12:30, 총 5회
수강료: 무료
개강일: 10월 11일(금)
- ※ 문 의: 송혜진 이사(문의564-4885 내선 3번)
4. 성인 전신진체·발달 전문가 취업준비 과정
성인 전신체·발달 전문가와 함께 하는 총액제비즈니스는 200년
전신체 전문가·발달 전문가 직업전문 프로그램에 가입
세 석자를 모집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전국가
에 위치한 다양한 교육체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 상: 만 18세 이상 30대까지의 전신체 및 발달장애
(남녀불문)
모집기간: 2007년 12월말까지
- (접수 및 신청의 편의와 기회를 위한 초·신학교생도 가입)
※ 문 의: 송혜진 대표 직접전화(564-4885 내선 401번)

유한전도히 연합체육대회

충현에 속한 요한전도회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새워가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회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일시: 10월 13일(둘째 토요일) 14:30~19:00
장소: 현대고등학교(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대상: 전 교구 오후지도회원 전체

교회오시는길



예배안내

구분	시간	참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주일 어린이주일예배(예)	본당
	V 오후 3:00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00 ~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후 3:00	본당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익모사 김성관

■ 시무작로

조진기 74년생	김은호 75년생	노병헌 노병헌 4회
이병학 75년생	윤인현 75년생	최태원 최태원 4회
강보용 76년생	오정현 76년생	이 훈 이 훈 4회
서우석 76년생	정운석 82년생	김영길 김영길 4회
조인재 76년생	김종구 77년생	최무길 최무길 4회
이호영 78년생	차진석 78년생	매영환 매영환 4회
정남남 78년생	이종식 85년생	윤성철 윤성철 4회
박인진 83년생	김진관 86년생	이병욱 이병욱 4회
최병환 72년생	임무정 제2교과목출제위원	이종철 이종철 4회
이갑재 85년생	전홍용 전홍용 4회	전종철 전종철 4회
김단용 제1교과목출제위원	황영일 황영일 4회	손 철 손 철 4회
김영순	최후식	김희하

부동산

이홍식 12월 12일	이승태 3월 26일	정현민 3월 27일	김동하 3월 27일	차병준 3월 27일
김병태 3월 27일	서경진 3월 27일	정해성 3월 27일	이준경 3월 27일	박기인 3월 27일
여성기 3월 27일	류병희 3월 27일	노경목 3월 27일	이종철 3월 27일	김영준 3월 27일
여국진 3월 27일	김교섭 3월 27일	송길환 3월 27일	이수근 3월 27일	이유진 3월 27일
안창덕 3월 27일	박영준 3월 27일	나용평 3월 27일	정진호 3월 27일	김용덕 3월 27일
이성욱 3월 27일	고광환 3월 27일	신성식 3월 27일		

■ 찬양팀별 감응구

간도사	김영기	신석현
-----	-----	-----

■ 여전도사

정연희	김경자	송화향	신동자	윤인숙
김옥운	한은진	김민희	홍순애	이옥주
김말안	안태순	최희성	백희자	김정연

■ **교정전도사** 반양대

■ 선교사

이소영 최은아

이승아, 김지영, 홍현우
발간처

■ 협력선교사 허요셉(아집트) 강기엽(아프리카)

세. 가. 조. 으. 하. 여. 하.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77	강희복	15	청년1부		782	이영미	19	청년1부	
778	한요진	19	청년1부	한준희(2)	783	고상미	19	청년1부	
779	조영진	19	청년1부	이은진(1)	784	김정진	19	청년1부	정복호(2)
780	이희원	1	청년2부		785	석보라	19	청년1부	
781	황현우	19	청년1부						

* 출석교회인 하가초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